

모든것을 획일화·대체 가능하게 하는
세계적인 것의 폭력에 대한 비판



타자의 추방

한병철 지음

“타자가 존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비밀로서의 타자, 유혹으로서의 타자, 예로 스로서의 타자, 욕망으로서의 타자, 지옥으로서의 타자, 고통으로서의 타자가 사라진다. 오늘날 타자의 부정성은 같은 것의 긍정성에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것의 자유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피로사회’, ‘투명사회’로 현대의 병리를 날카롭게 파헤쳤던 한병철 교수가 신작 ‘타자의 추방’에서 오늘의 사회는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대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낸다고 꼬집는다. 저자는 오늘날의 세계가 겉으로는 자유와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이 지배하는 지옥’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오래 전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오늘날에는 같은 것이 지옥인 세상이다. 이 지옥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배된다. 과거에는 인간

을 착취하기 위해 억압과 금지와 부정이 행사되었던 반면, 지금은 자유와 허용과 긍정이 인간을 자기착취로 이끈다는 것이다.

즉 같은 존재로 획일화된 인간은 자기 안에 갇혀 진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 능력도 상실한다.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생산에 최적화하려고 애쓸 뿐이다.

또한 저자는 테러리즘, 민족주의, 진정성 추구, 셀카 중독과 같은 현상 속에서도 폭력을 추적한다. 정확히 말하면, 세계적인 것의 폭력에 맞서는 파괴적인 힘에 주목한다. 여기서 저자는 “세계화의 광기가 테러리스트라는 광인을 만들어낸다”고 한 보드리야르의 말을 인용한다. 테러 공격은 같은 것의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극단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절망감과 전망의 부재가 불러온 사회적 현상이다. 테러리즘 세력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결국 구원은 타자에서 온다. 같은 것의 장벽에서 인간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타자를 배척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환대로서 맞이해야 한다는 논리다. 타자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보고 윤리적 우선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종교와 윤리의 깊이 있는 통찰

젊은이들 나아 갈 방향 제시



박이문 인문학 전집 특별판

박이문 지음

박이문 선생은 한국 최고 인문학자 가운데 한명으로 평가받는다. 젊은 시절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데리다, 들뢰즈 등 당대 최고 사상가들에게 배웠고 또 그들과 교류하며 유럽의 사상을 공부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대유형철학과 영미철학을 두루 섭렵하며 보스턴 시몬스대학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해 출간된 ‘박이문 인문학 전집’은 문학과 철학, 실존적 지향과 의미 추구, 사랑과 지혜, 삶과 죽음, 그리고 노자와 공자,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등 걸출한 철학자들까지 다룬 한국 현대 인문학의 정수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초판 1주년과 88세 미수(米壽)를 기념해 ‘박이문 인문학 전집 특별판’이 문고판 형식으로 새로 나왔다. 보다 젊은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젊은 감각의 디자인으로 발간된 전집에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지혜가 유려하게 펼쳐져 있다. 무엇보다 종교와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들은 우리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다스북스 대표 류종열은 ‘문학사상’에 ‘남기고 싶은 말- 박이문을 대신하여’라는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저기 동네 어귀에서 있는 전나무를 닮았으면 좋겠다. 삶이, 그 하루하루가, 아니 그 한순간 한순간이 자유와 그것이 동반하는 불안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의식하면 할수록 삶이 있으면서 모든 정신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초연하게 전나무의 기개를 닮았으면 좋겠다.” <미다스북스·8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엇보다 소설을

함정임 지음



어니스트 헤밍웨이, 마르셀 프루스트, 빅토르 위고, 귀스타프 플로베르, 찰스 디킨스, 버지니아 울프, 밀란 쿤데라, 움베르토 에코...

말이 필요 없는, 수사가 거주장스러운 작가들이다. 문학을 잘 몰라도, 소설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학창 시절에 한두번쯤 들어봤을만한 문호들이다.

“한 편의 소설에는 한 작가의 생애가 로세겨져 있다.” 지극히 보편적인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소설 쓰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이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노마드 기질을 타고난 소설가”라고 불리는 함정임 작가에게 앞서의 말은 보편과 특별을 아우른다.

함 작가가 이번에 펴낸 ‘무엇보다 소설을’은 그녀가 읽어낸 내밀한 독서 이야기다. 책에 담긴 27편의 소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소설로 통한다’는 저자의 말을 또렷하게 방증하고도 남는다. 책에는 모두 70여 편이 소설이 초대돼 있으며 작품이 쓰이게 된 배경, 소설 작법 등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00년 역사 지닌 옥스퍼드 배움의 정신 분석



옥스퍼드 천년의 가르침

오카다 아키히로 지음

영국 옥스퍼드는 1000년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다. 지금까지 훌륭한 정치가, 기업가, 예술인,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많은 이들은 독특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니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무대인 쿠바 아바나의 코히마르 포구.

<에담 제광>

“소설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 개성만큼이나 각 소설이 품고 있는 세계의 언어와 형식은 다 다르다.”

위의 말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소설로 통한다’는 의미가 전제돼 있다. 이 전제를 증명하고 설파하기 위해 함 작가의 노마드적 소설 속 여행의 형태로 발휘된다. 현장을 찾아가 발로 쓴 27편의 글은 생생한 현장감과 함께 낯선 상상력을 더해준다. 각각의 글들은 원전의 맛을 더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저마다 울림을 주는 독특한 에세이로 다가온다.

함 작가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고전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부터 엘리엇의 ‘디어 라이프’까지 전 시대를 아우른다. 나아가 19세기 파리의 풍경을 세밀화로 포착해낸 귀스타프 플로

베르의 ‘감정교육’, 우회라는 실존의 긴 여정을 다룬 밀란 쿤데라의 ‘항수’도 주목한다.

또한 줄리언 반스의 ‘예감을 들리지 않는다’ 첫 장면에서 ‘연인’의 마그리트 뒤라스의 음성을 떠올리기도 한다. 여행을 떠났던 코히마르 포구에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소설 속 장면을 본뜬 것 같은 노인인물과 소년들 만나는 이야기도 펼쳐진다. 이처럼 소설 읽기는 하나의 세계를 허물어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이끄는 수단이 된다.

27편의 글에는 세계적인 문호들뿐 아니라 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김영하, 이기호, 김사과, 정한아의 작품이 품고 있는 고유의 세계관을 들려주기도 한다. 소설과 소설을 가로지르며 사유의

확장이 가능한 이유다.

정한아가 ‘리틀 시카고’에서 묘사한 골목길을 통해 박완서의 ‘나목’ 속 패허가 된 서울로 이끌기도 하고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과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대비하며 프랑스와 한국의 문학을 낚는다. 독자들이 혹여 읽지 못했을 소설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문학적 스펙트럼을 넓힌다. 작가의 시선이 녹아 있는 사전을 보는 맛도 이채롭다.

저자는 “소설 속의 어떤 곳은 청춘 시절부터 가슴에 품었으나 긴 우회 끝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여행 중에 돌발적으로 여정을 바꿔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길든 길의 속성은 끝과 시작이 하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담·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국은 ‘북핵 문제’ 어떤 해법 가지고 있을까



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

김중성 지음

‘북한과 미국의 대결사’라고 할 수 있는 책 ‘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가 출간됐다. 동북아 전문가이자, 역사 강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중성이 펴낸 이 책은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동북아의 미래를 주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답은 전쟁 아니면 용인 두 가지 카드밖에 없다. 미국은 우방인 한국 때문에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중국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하나뿐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저자는 오늘날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 한다.

<내일을 여는 책·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 山 프리모 남여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의스카프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오페이지 제원키움프로그램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한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95202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내열성 6년 무상 A/S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광명보건소/대전대학교/매곡시보전소
안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